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미얀마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021년 4월 30일 | 조사역(G3) 이승제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677천 km <sup>2</sup> 	<b>인구</b> 53.2백만 명 (2020)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공화제) 	<b>대외정책</b> 비동맹중립 
<b>GDP</b> 813억 달러 (2020) 	<b>1인당GDP</b> 1,527달러 (2020) 	<b>통화단위</b> Kyat(KT) 	<b>환율(U\$기준)</b> 1,382.6 (2020) 

□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며 인도, 중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2015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승리하고 2020년 11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둬 집권을 이어가는 듯했으나, 2021년 2월 군부의 쿠데타 단행으로 현재 미얀마는 군부 집권하에 있음.

□ 군부 집권과 동시에 국민들의 반 쿠데타 운동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 불안정을 겪고 있음. 쿠데타 이후 서방의 제재 부과와 대규모 투자 철회 등으로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개방정책과 인프라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임.

□ 미얀마 경제는 추후 정권 관련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쿠데타 관련 서방과의 갈등이 해결되어 제재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인근국 대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섬유 봉제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5. 5. 16 수교 (북한과는 1975. 5. 16 수교, 1983. 11 단교 후 2007. 4 복교)

**주요협정** 무역협정('67), 항공운수협정('78),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03), 사증면제협정('11), 무상원조협정('13), 투자보장협정('14)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534,059	631,596	608,927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의류
수 입	536,583	595,191	465,871	의류, 신변잡화, 농산가공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0.12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477건, 4,292,262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6.4	5.8	6.4	6.8	3.2
소비자물가상승률	9.1	4.6	5.9	8.6	5.7
재정수지/GDP	-3.9	-2.9	-3.4	-3.9	-5.6

자료: IMF, EIU

### 2020년 미얀마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대폭 둔화된 3.2% 성장 추정

- 미얀마는 2011년 48년 간의 군부 통치를 마감하고 민간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경제 개방을 선언하면서 미얀마 신투자법과 회사법 제정, 경제특구 지정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2019년까지 평균 5% 이상의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여옴.
- 경제 개방이 이루어진 지 10년 만인 2020년 미얀마의 GDP 규모는 개방 전인 2010년의 380억 달러와 비교해 약 113% 증가한 813억 달러를 기록. 이는 민간 정부 출범에 따른 서방의 제재 완화가 외국인투자와 금융거래 활성화로 이어진 결과로, 미얀마는 2012년 이후 지속된 GDP 대비 30%를 상회하는 활발한 투자를 원동력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함.
- 그러나 2020년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얀마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음. IMF에 따르면 2020년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3.6%p 하락한 3.2%를 기록함. 이는 2011년 경제 개방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봉쇄 조치와 미얀마의 주력 산업인 봉제업의 해외 수요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군부 집권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2021년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전망

- 2021년 2월 발생한 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는 다시 군부의 집권하에 놓이게 됨. 쿠데타 이후 서방의 제재가 부과되고 미얀마의 통화인 쟈(kyat)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무역 제재 가능성 역시 남아있는 상태임. 이처럼 미얀마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망기관들은 미얀마의 20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예상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함.  
\*2020/21회계연도 예상 경제성장률: EIU: 2.6%→-0.4%, Fitch Solutions: 5.6%→2%, IHS: 1.3%→-0.2%
- 미 달러당 쟈화 환율은 쿠데타 발생 직전인 2021년 1월 31일 1,328.86쟈에서 쿠데타 발생 후인 2월 5일 1,407.54쟈으로 5.9% 상승한 이후 4월 27일 현재 1,557.91쟈까지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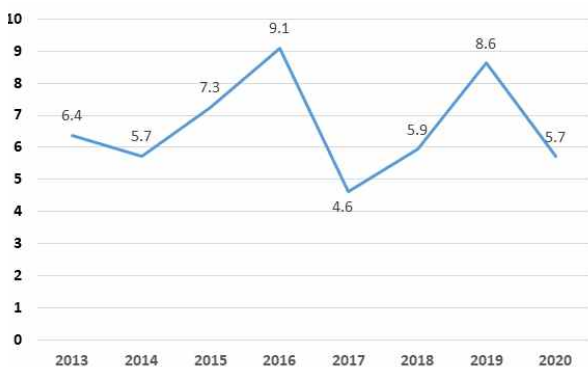
## 국내경제

- 특히 외국인투자 유입의 현저한 감소는 미얀마의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의 주된 원인임.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의하면 쿠데타 발생 직후인 2021년 2월의 외국인투자 승인액은 '0'으로, 미얀마에 대한 신규 외국인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EIU에 따르면 쿠데타로 인한 정치, 사업환경의 불안정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자들이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유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020/21 회계연도 미얀마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전년대비 약 50%의 급격한 감소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얀마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 경제는 향후 쿠데타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의 전개 방향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만약 군부가 집권하는 현재 상태가 굳어질 경우 2011년 경제 개방 이후 미얀마가 향유하던 '새로운 시장'이라는 이점이 사라져, 2019년 수준의 활발한 경제상황으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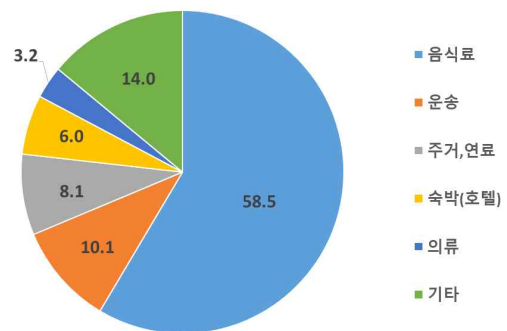
### 짖화 평가절하로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세 지속 전망

- 미얀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007년 약 35%의 수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1년 경제개방 이후에도 평균 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 압력은 단기간 고성장에 수반된 것으로, 자본재와 연료의 높은 수입의존도, 부동산 가격 급등, 중앙은행의 외환관리능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0년에도 5.7%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비중 (2020, %)



자료: Central Statistics Organization Myanmar, IMF WEO

- 2021년 미얀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인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IMF: 5.0%, EIU: 5.1%).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로 인한 소비자 수요 감소와 쿠데타로 인한 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짖화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국내경제

### 취약한 세수기반 및 코로나19 대응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예상

- 미얀마는 과거 군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하경제가 발달해 구조적으로 과소한 조세수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2011년 집권한 민간 정부는 에너지, 도로 등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왔으며, 그 결과 미얀마의 재정수지는 지난 20년간 매년 적자를 기록함.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과 방역 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 지난 5년간 3%대를 유지하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5.6%로 확대됨. 미얀마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대출 만기 연장, 국영공장 임대료 면제, 면세 등의 정책들이 담긴 코로나19 경제구제계획(CERP: Covid19 Economic Relief Plan)을 발표하고 이를 2020년 말까지 시행함.
- 2021년에도 쿠데타 상황과 코로나의 2차 유행에 의한 경기 악화가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해 2020/21회계연도 미얀마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한 8%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미얀마 정부는 2020/21회계연도 경기 부양을 목표로 GDP의 5% 이상을 정부지출로 편성할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군부가 이전 정부의 지출계획에 따라 인프라 확충에 계속 힘을 쏟는다면 향후 2025/26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는 꾸준히 GDP의 5~6%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1,827	-4,795	-2,398	240	-2,587
경상수지/GDP	-3.1	-7.8	-3.6	0.4	-3.2
상 품 수 지	-3,577	-5,766	-4,132	-2,850	-609
상 품 수 출	9,235	9,811	11,076	10,841	17,658
상 품 수 입	12,812	15,577	15,208	13,691	18,267
외 환 보 유 액	4,619	4,911	5,347	5,468	7,224
총 외 채 잔 액	12,271	17,700	19,570	18,950	18,950
총외채잔액/GDP	20.4	28.9	29.4	27.6	23.3
D. S. R.	4.4	4.4	5.3	4.8	4.3

자료: IMF, EIU

### 의류의 국제수요 감소와 서방의 제재 가능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 증가 전망

- 2021년 미얀마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4.9%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으로 미얀마의 핵심 수출품인 의류의 국제수요가 감소하여 2021년 미얀마의 경상수지 적자를 가속화할 전망이며, 최근의 미얀마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태국, 싱가포르 등의 규제 강화 역시 미얀마 경상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미얀마의 경상수지는 2011년 민주정부 집권 이후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에너지·연료와 자본재 수입이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적자를 유지해옴. 2021년 쿠데타로 재집권한 군부도 이전 정부의 인프라 개발 기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 2019년 이례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제조업 투자 급증에 따른 의류 수출의 증가와 미얀마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 안정화가 이루어진 결과였음. 당시 향후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와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봉제품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 전환되었음.
- 쿠데타로 인한 미국과 EU의 투자 회수로 수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고조됨. 미얀마는 지난 5년간 의류 제조업 부문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는 외국 자본의 제조업 투자가 중국에서 미얀마로 이동한 결과임. 미얀마의 수출에서 미국과 EU의 비중은 약 25% 수준이지만, 미국과 EU가 투자를 회수하거나 투자 관련 제재를 부과할 경우 수출에 분명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대외거래

### 경제 개방 이후 외국인투자 유입 활성화로 외환보유액 증가

- 미얀마의 외환보유액은 2020년 기준 72.2억 달러로, 미얀마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외환보유액을 늘려가고 있음. 의류 수출과 해외근로자로부터의 송금 증가가 외환보유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2020년 미얀마의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3.9개월분으로, 이는 통상적 적정치로 보는 2.5~3개월분을 상회해 최근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쿠데타로 인한 외국인투자 감소가 예상되어 2021년 이후 다시 외환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함.
- 미얀마의 외환보유고액 확충은 최근의 일로, 미얀마 중앙은행은 과거부터 지속된 외환보유액 부족과 현지 자본시장 미성숙이라는 고질적 문제점으로 인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외채상환능력

### 외채구조는 안정적인 편이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양호한 수준

- 2020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3.3%로 GDP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외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4.3%로 매우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1년 코로나19와 쿠데타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이 잦아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외채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비교적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미얀마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구조적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는 경제개발정책과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 미얀마는 대도시인 양곤과 네피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통신, 교통, 전기 등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국이며, 이처럼 열악한 인프라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미얀마 정부는 2011년 이후 발표해온 '미얀마 국가종합개발계획(NCDP)'과 '12대 경제정책', '미얀마 지속가능 개발계획(MSDP)' 등에서 인프라 구축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정립했으나, 여전히 인프라 개발은 미흡한 상황임.

#### 미얀마의 인프라 경쟁력 지수

인프라 전체		도로		철도		전력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2.4	135	2.3	136	1.8	96	2.7	118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 (평가대상국 140개국)

## 성장잠재력

### 풍부한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 전망

- 미얀마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832억m<sup>2</sup>로 세계 40위, 원유 매장량은 5,000만 배럴로 세계 5위 규모임. 이러한 에너지 자원 보유량을 바탕으로 광업은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개발 9개 분야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미얀마의 천연가스 개발에 중국, 싱가포르 등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천연가스는 2018년까지 미얀마 제1의 수출품목이었으며, 현재도 생산량의 약 80%를 중국과 태국에 수출하고 있음.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에 따르면 2019/20회계연도 천연가스 판매량은 약 35억 달러로 총수출의 20% 수준이며, 천연가스 수출은 미얀마 정부의 주된 수입원임.

###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에 유리한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수준

- 미얀마는 5,300만 인구 중 약 3,800만 명이 노동 가능 인구로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피라미드 형에 가까운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미얀마의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1일(8시간) 4,800짖(\$3.40)으로, 이는 인접국인 베트남, 필리핀 등과 비교 시 60% 수준임. 이처럼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수준에 힘입어 최근 상당 규모의 제조업 투자가 중국에서 미얀마로 이전하여, 현재 미얀마의 제조업은 봉제업을 필두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정책성과

### 국가개발정책과 개방정책 추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효과 달성

- 미얀마는 경제 개방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단기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온 결과 2011년 이후 꾸준히 평균 5%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빈곤율은 2010년 42.2%에서 2017년 24.8%로 크게 감소함. 이 같은 성과를 통해 미얀마는 2018년부터 UN이 선정하는 최빈국(LDC)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임.
- 미얀마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2016년 3월 '미얀마 신투자법'을 발표해 전반적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옴. 또 2018년 '신회사법' 발효를 통해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 토지 소유 및 사업분야의 차별과 규제를 완화함.
- 미얀마 정부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장·단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옴. 2011년에는 20년 장기 국가개발계획인 '미얀마 국가종합개발계획(NCDP)', 2016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주도의 '12대 경제정책', 2018년 이를 구체화한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를 발표하고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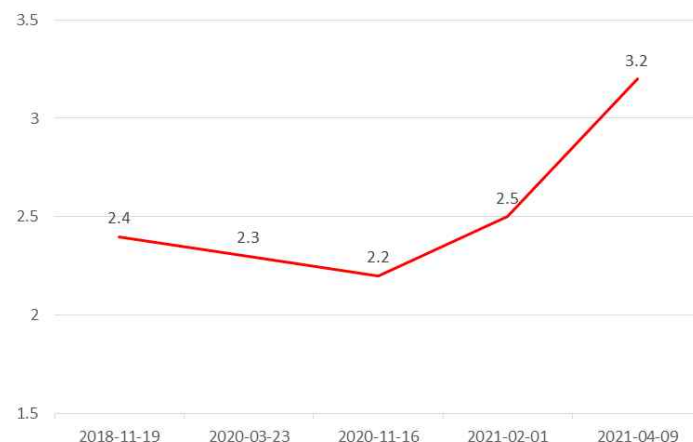
## 정치안정

### 2021년 2월 군부의 쿠데타 단행으로 정치적 불안정 극대화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국가 고문, 원민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1년 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현재 군부는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최고사령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운영평의회(State Administrative Council)'라는 초정부적 군정 최고기구를 통해 국정을 장악한 상태임.
- 2020년 11월 실시된 총선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민주주의 민족동맹)가 군부에게 할당된 25%를 제외한 476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총 의석(664석)의 62%를 확보해 아웅산 수치가 국가 고문을 연임할 것으로 보이며 마무리되었음. 단, 군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해 왔음.
- 민간 정부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이자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는 현재 수출입법 위반, 공직자비밀엄수법 위반 등 6개 죄목으로 기소되어 구금된 상태이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장 38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임.
- 현재 군부는 24개 부처 장·차관을 교체했으며, 새롭게 임명한 16명의 장관 중 8명은 군 장성 출신으로 채워짐.
- 군부는 당초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한 후 총선을 새로 실시하여 1년 안에 민간에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반 쿠데타 운동 등으로 사회 불안정이 이어지고 군부와 민간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총선 재실시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군부 쿠데타는 미얀마의 정치적 위험도를 급격히 상승시켜, 글로벌 분석기관 IHS Markit은 2021년 2분기 미얀마의 정치적 위험도 지수를 쿠데타 이전의 2.2에서 3.2로 상향 조정함. 이는 반 쿠데타 시위에 대한 군부의 강도 높은 무력 진압과 광범위한 파업 등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본 결과임.

\* IHS Markit의 정치적 위험도 지수는 10점을 최고점으로, 정치적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치를 부여함. 2021년 2분기 미얀마의 정치적 위험도 지수는 3.2로 정치적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태국: 2.4, 캄보디아: 1.4)

미얀마 정치적 위험도 지수



자료: IHS Markit

## 정치안정

### 향후 미얀마의 정치상황은 여러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 존재

- 현 상황에서 높은 불안정성을 보이는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Fitch Solutions에서는 21년 2월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미얀마 정치구조의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함.

#### [1] 군부독재(가능성 70%) 군부가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상태 지속, 현재 태국과 유사한 상황

- 이 시나리오에서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3~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1~19년 민주정부 당시 매년 약 7%의 성장률을 보인 것과 대조됨.
- 군부가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과 같은 사회 불안정 속에서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군부가 통치를 이어가는 것, 혹은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2020년 11월의 선거 결과만을 인정하려는 국민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율 미달 상황이 발생해 군부의 통치가 계속되는 것, 그리고 군부가 선거 규정을 개정해 군부가 지원하는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Development Party)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 등이 예상됨. 이러한 형태들은 현재 태국의 통치형태와 유사하며, 이 경우 더욱 강력한 사회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군부의 집권이 계속될 경우, 미얀마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방이 직접적인 무역·경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는 현 상황과 달리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함. 또한 미얀마에 대한 투자나 사업을 진행하여 국제적 평판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는 많은 기업·기관들이 미얀마에서 철수하거나 원조와 투자를 철회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미얀마는 원조 철회와 세수 감소로 인해 민간투자뿐만 아니라 공공투자 역시 부진을 겪을 것으로 추정되며, 물적·인적 인프라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어 장기 경제성장 전망 악화가 예상됨.

#### [2] 불완전한 민간 이양(가능성 25%) 서방의 징벌적 수단들로 이전의 민간정부 상태를 복구하는 데 성공하지만, 여전히 군부가 헌법 규정이나 군부 소유 기업들을 통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

- 쿠데타 이전과 같은 형태로, 이 경우 평균 경제성장률 5~8%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민간정부 집권 이후 적극적인 정치·경제 분야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분야에서는 경제에 비해 뚜렷한 변화를 달성하지 못함. 이는 군부가 헌법에 따라 사전 할당받은 전체 의석의 25%를 이용해 군부의 권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미얀마 헌법 개정에는 의회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결과로, 헌법 개정을 통한 군부의 영향력 축소는 이후로도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또한 군부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 미얀마경제공사(MEC) 등의 소유를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이 형태에서 민간정부가 군부를 규제하고 통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미얀마가 민간정부 형태를 회복한다면 미얀마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중국으로부터 미얀마로의 공급망 이동이 재개되어 의류 등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또 활발한 투자 유치와 수입 정상화, 민간소비 증가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회복하고 쿠데타 이전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치안정

- ③ **완전한 민주주의로 전환**(가능성 5%) 국내의 강력한 반발과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미얀마가 완전한 민주주의 형태로 전환되고 군부의 영향력이 완전 제거되거나 매우 축소되는 경우
- 가장 낙관적인 동시에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로, 이 경우 미얀마는 연평균 8~10%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민정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서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유인으로 작용해 2011년과 같은 급격한 해외투자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보임. 특히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봉제업 등 제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프라 개발과 사업환경 개선으로 인해 투자 효율성 역시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미얀마 내 소수민족과의 분쟁 위험 역시 제거되어 인권과 관련한 대외신인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사회안정

### 격렬한 반 쿠데타 시위 발생에 대해 군부 강경 진압으로 대응 중

-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 대대적인 반 쿠데타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며, 군부는 시위대에 대해 실탄 발사, 체포 등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음. 미얀마 영문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2021년 4월 현재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인한 사망자는 700명을 넘어섰고 시위 중 구금된 인원은 2,7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 쿠데타가 발생한 2월 1일 밤부터 미얀마 국민들은 자동차 경적 울리기, 냄비 두드리기 등 '소음 시위'를 진행하며 쿠데타 불복 의사를 표현하였음. 이후 쿠데타가 일어난 뒤 첫 주말인 2월 6일부터 시위가 본격화되어 양곤과 네피도 등 대도시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 쿠데타 시위가 발생하여 4월 현재까지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 4월 현재 군부의 무력 진압에 대응해 일부 시위대도 사제 무기 등을 들고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시위가 시가전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2015년 군부와 휴전협정을 맺었던 소수민족 무장단체 지도부가 4월 1일, 민주진영이 2008년 군부 헌법을 폐기하고 '민족 통합정부'를 세우겠다는 선언을 한 것에 화답해 휴전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됨.

## 국제관계

### 군부 집권하에서 서방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전망

-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 미국은 쿠데타 발생일인 2월 1일 미얀마 소요사태를 '쿠데타'로 공식 규정하고 민주 정부로의 권력 이양과 구금자 석방을 촉구했으며,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상태임.
- 미국과 영국 등은 군부 주요 인사와 관련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군부 소유 기업들이나 미얀마 국영기업, 군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광업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개별 제재를 부과함. 미얀마에 부과된 제재들은 대부분 미얀마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군부 개인이나 관련 기업에 대한 개별적 제재 형태를 띠고 있음.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29일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에 따른 모든 교역 관련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임을 선포하는 한편,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프로그램 재승인 검토 시에도 미얀마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것임을 밝힘.
- 추후 일반적인 무역 제재로 이어질지 여부는 판단하기 힘든 상황임. 다만, 경제제재 강화시 미얀마 군부의 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제재 부과가 미얀마경제지주사(MEHL), 미얀마경제공사(MEC) 소유를 통해 주요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군부에 압박을 가하기보다 오히려 미얀마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시 강력한 제재 부과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살해를 규탄하고 있지만 실질적 경제 제재나 평화유지군 개입이 아닌 구두경고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에 압박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이러한 유엔의 미온적 태도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직접 겨냥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취하며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 증대 예상

- 군부 정권하에서 미얀마는 쿠데타에 대해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덜 비판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군부의 권력 찬탈을 쿠데타로 규정하기를 거부하며 암묵적으로 군부를 지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양자 관계는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인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 건설 사업(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과 관련한 주요 인프라 개발과 함께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 중국 투자자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수용성을 보여, 미얀마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UNCTAD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은 미얀마 총 FDI 유입량의(누적기준) 약 34%를 차지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2013년 이후 채무재조정 경험 없으며, 채무재조정 이전의 기존 연체금 상환 중

- 2013년 파리클럽은 회원국들에 대한 미얀마의 국가채무 99억 달러 중 56억 달러(56.3%)를 탕감하고, 43억 달러(43.7%)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재조정을 결정하였음.
- 2020년 9월 30일 기준 미얀마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 992.6백만 달러(단기 94.4백만 달러, 장기 898.2백만 달러) 중 748.8백만 달러가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연체비율이 75.4%로 높은 편이나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연체는 없으며, 장기연체는 모두 채무재조정 기산일(2012년 12월 31일) 이전 채무에 대한 연체임. 또한 재조정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안정적으로 연체금을 상환 중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20.06)	6등급(2019.06)

### OECD, 2017년 이후 6등급 유지 중

- OECD는 시장 개방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과 민주화 진행 등을 바탕으로 2017년 6월 미얀마의 국가 신용도 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2021년 4월 현재까지 등급을 유지 중임.
-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미얀마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미얀마 경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2021년 2월 발생한 쿠데타로 인한 서방의 제재 위협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2021년 성장률이 0~2%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경제규모 대비 외채비중은 양호한 편이며 최근 외환보유액 또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와 쿠데타의 여파로 서방의 투자와 원조 철회 가능성이 상승함.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잦은 평가절하 역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환율 관리와 외환 확보 노력이 요구됨.
- 최근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이 유인으로 작용, 노동집약적 산업의 공급망이 중국으로부터 미얀마로 이동함에 따라 봉제업 등 제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옴. 그러나 쿠데타 이후 서방의 투자 철회와 무역 제재 가능성에 따라 성장세 위축이 예상됨.
- 향후 쿠데타와 관련한 국내 정치 상황의 전개, 서방의 제재 여부 및 실효성, 사회 안정이 미얀마의 경제 성장과 국가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